

죽이는 율법을 살리는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신명기

신명기 21:18-21, 요한복음 8:1-11

정윤돈 목사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오만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도 이 행복, 평안,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단 한 사람, 내가 빼앗아간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 말씀이고 기도다. 성령충만받고 새 힘 얻는 날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죽이는 율법을 살리는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취될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서론 : 신명기에 대한 설명

(1)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다. 모세는 오경을 기록했다.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몇 차례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다. 결국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곧 헬리어로 예수아, 곧 예수라는 이름이다.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다.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말 아닌가.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신약을 보면, 율법은 곧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죄가 죄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

(2)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특별하다. 달걀 노른자처럼, 12장에서 24장까지가 율법의 중심이다. 나머지는 이 핵심을 싸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이다. 미국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체계적, 논리적으로 하는데, 모세의 설교는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왔다갔다 하는 한국 사람들의 설교와 흡사하다. 그러면서도 은혜가 된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설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

(3) 그래서 신명기는 후대를 향한 설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의해라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 6:4-9이다. 우리가 이것을 '세마'라고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이 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아예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왕 옆에 두고 항상 읽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창고에 처박혀 있었다. 이것을 찾아내어서 요시아 임금이 읽고 통회하고 회개한 것이다. 우리 후대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이 말씀 안에 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 축복의 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명기 6:6-9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님이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가 1년 동안 직장에 안 간다고 한다. 1년 동안 가장이 가정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정에서 전달할 것인지를 1년 동안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 언약이 부모님, 특별히 가장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복음을, 말씀을 새겨야 한다. 먼저 누려야 한다. 유대인들은 강제로 가르치지 않았다. 포럼을 했다.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했다. 신명기 6:7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는 안 하지 않나.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다. 그냥 전달하지 말고, 강의하듯이 깊이있게 포럼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깊이 묵상하다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자녀들은 또 그것을 두고 열린 토론을 한다. 회당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 반, 합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포럼도 잘 하고 토론도 잘 한다. 세마 교육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다. 유대인을 능가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4) 신명기의 대부분은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또는 규례, 법도, 율례, 하나님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명기 1:5에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 했다. 신명기 4:1에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리라고 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죽었구나 하게 된다. 우리는 못 지키겠구나 하게 된다. 힘을 얻기보다 좌절하게 된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율법의 본질을 왜곡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본질인데, 율법을 위한 율법으로 바꿔 버렸다. 죽이

는 것에 골몰했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짚어 버리라는 것은 손을 정말 짚으라는 것이 아니다.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사단 마귀에게 저서 결국 망하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 율법의 의미

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이 결코 지킬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개념을 살펴보고, 율법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율법의 개념이 변화되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목사님들도 편협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 율법과 복음을 무조건 대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아도 본질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이다.

(1)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복음, 그리스도가 빠져 버리면 율법, 계명, 법도는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신학자는 이것을 모르니까 구약을 성경에서 빼다. 어떤 다른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데, 천 년의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안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출애굽기 21:15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다. 출애굽기 21:16에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다. 직장에서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를 심하게 다루는 고용주를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자. 한국도 어업을 하기 힘들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원양어업만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 합법적인 노예나 다름없다. 출애굽기 21:17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면 돌아가실 분이 많다. (웃음) 출애굽기 31:15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일 아침부터 죽이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레위기 20:10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말이다. 레위기 20:13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 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또 레위기 20:27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죽이라고 했다. 신명기 21:18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배 끝나고 실습을 해 보자. (웃음)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일러라. '방탕하고 말 안 듣습니다!' 하고 시범적으로 말씀을 실천해 보자. (웃음) 이 시대는 정리가 안 되어 있었으므로 강조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민주 사회가 되어서 변화된 것이 많이 있다. 지금은 예배드릴 때 남자가 다 섞여있는데, 옛날에는 광고도 안 했는데 남자가 따로 앉았다. 평양의 초기 교회당은 분당이 구역(一)자로 되어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않나. 시대마다,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틀에 집어넣으면 잘못 적용하게 된다.

(2)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을 목사님들에게도 해 본다. 그러면 혼란에 빠진다. '복음이면 다지!' 하고 이야기한다. 정리가 안 된 것이다. 아마 그리스도인, 목회자, 신학자들도 거의 한번도 정리를 안 해 봤을 것이다. 서철원 박사라는 대단한 석학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책을 썼다.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율법이 종류가 다양하고 시대마다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율법이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규례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율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그래서 율법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다.
- 2) 그러나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는 변했다. 지금 양 잡고 소 잡지 않지 않나. 절기 안 지키지 않나. 변했다.
- 3) 또, 위생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율법이 있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감지찌개는 어떻게 끓이나? (웃음)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 젓가락을 대지 않는다. 쉽게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막 기후에서 이것을 잘못 하면 식중독으로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생기면 마을을 완전히 폐쇄하고 불태웠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악성 전염병인데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조류독감이 발병하면 아깝고 불쌍하지만 다 생매장하지

않다. 그러나 약이 나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식중독 심해져도 주사 맞으면 되지 않나. 예배 드리면 치유되고 용서되도록 변화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4) 또 윤리, 도덕에 대한 법이 있다.

5) 사회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율법이 있다.

② 또, 변화되는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율법을 제정한 후부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상은 어떤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뀐다. 그때는 우상이 형상우상이었지만, 지금은 우상이 지식이다. 이념이다. 무신론이다. 사상이다. 이게 대학의 상태다.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램프가 최고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바란다. 지금은 성경 시대처럼 가서 우상 때려부수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은 단군상 목을 날렸다가 구속됐다. (웃음) 시대가 바뀌었다.

2) 두 번째는 없어진 법이다. 제사, 할례, 음식에 관한 법들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먹지 못할 음식이 내려온다.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하나, 이것이 정결케 되었다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주님께 직접 대면할 수 있다. 그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없어진 것이다.

3) 변화된 법이다. 안식일이 주일로, 제사가 예배로, 성막 회막이 예배당과 현강교회, 현강 다락방과 현강 지교회로 변했다. 지금 직장생활은 너무 바쁘다. 그래서 현강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뿐 아니라, 신약시대는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성탄절로 바뀌었다. 일요일이 주일이면 월요일은 나의 날이고 화요일, 수요일은 가족의 날인가? 아니다. 매일 주님의 날이다. 현장을 살리는 날이다.

③ 예수님은 아예 율법의 수준을 높였다. 마태복음 5:20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살려내라고 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이다.

(3)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그 시대 상황을 두고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대마다 성경에서 강조한 부분이 다르다. 오늘 시대에는, 과학 문명이 우상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과학을 조심해라, 진화론을 조심해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는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물질만능주의가 우상이다. 우리는 후대에게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 시대에 모세가 강조했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과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가부장적인 것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부부 치유가 많이 필요했다. 지금은 남녀평등 내지는 여성상위시대다. 이것을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아버지 따라 하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난다. (웃음)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이 시대는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해야 한다. (웃음)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나?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 내비게이션의 말이다. (웃음) 이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로 현장을 치유하시기를 축원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세가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학교가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 있지 않나? 그럴 때 우리 램프들이 선생님께 감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선생님들께 많이 맞았다. 사정없이 뺨을 많이 맞았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학생들을 존중해야 한다. 악한 시대고 힘든 시대지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주역이 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시대라면, 지식우상, 과학, 물질만능주의, 이념,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설교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방 신,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나.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친구인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가. 맛있는 음식인가. 게임인가. 아내인가. 그것이 우상이 된다.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후대에게 자신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겠다. 요즘은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왜 하느냐 했더니, 결국 나의 만족이다. 다 나 중심이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나다. 내 판단, 내 기준이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2. 살리는 생명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큰 두 번째로, 살리는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울무와 틀에 갇혀있는 사람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모두 악한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독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신다. 영생의 약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약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1) 엘리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평생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저녁 감감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 행복이 없고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안식이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3:16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2)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상처입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다. 이방인도 살리라고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치유하고, 사마리아성을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이다. 구약에서도 기생 라합이 그런 인물이었지 않나?

(3)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다. 이 여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다. 간음한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며, 이 여인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악용이지,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다. 무엇을 쓰셨겠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 거기 남자들, 젊은이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 하는 것을 다 쓰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다고 하는데, 십계명은 다 알지 않나. 아바 이름 다 쓰면서 뭘 저질렀는지 다 쓰셨지 않겠나 싶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목적은 용서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었다.

(4) 그래서 요한복음 13:34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다.

(5) 마가복음 12:33에, 율법 전체를 정리해 주셨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번엔 여러분이 엄청 수고하셨다. 감동하고,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합창단 단상 만든다고 고생을 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또 종교가 되어 버린다.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다.”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후대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세 가지를 특별히 축복하고 실천하게 했다. 우리도 후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실천해야 되겠다.

(1) 모세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저주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제발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으라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이다. 신명기 28:1-6을 읽어보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응답을 받기를 축원한다.

(2)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긴 찬양의 시를 썼다. 신명기 31:22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고 했다. 우리도 복음메시지를 찬양으로만 들고 있다. 기억이 가장 오래 가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지어 가르쳤다. 우리도 우리 후대들이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섬기도록 기도하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3)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120세의 고령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했다. 우리도 후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성과 축복의 달란트를 발간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 램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다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자세히 바라보면 보이게 되어 있다. 모세도 그랬다.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모든 지파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축복을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정결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을 죄와 사탄의 울무에서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다.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으로 버리지 않고,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적용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